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85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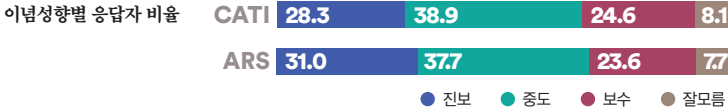
제100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표본크기	1,007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7	100.0%	1,007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497	49.4	498	49.5	1.00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9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9)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510	50.6	509	50.5	0.99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9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18-29세	159	15.8	158	15.7	0.99
응답률	11.8% [총 통화시도 8,528명]			30대	149	14.8	150	14.9	1.00
조사기간	2024년 10월 4일 ~ 10월 5일(2일간)			40대	179	17.8	177	17.6	0.98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00	19.9	197	19.6	0.98
				60대	173	17.2	177	17.6	1.02
				70세 이상	147	14.6	148	14.7	1.00
			지역	서울	188	18.7	188	18.7	1.00
				인천·경기	320	31.8	324	32.2	1.01
				대전·세종·충청	106	10.5	108	10.7	1.01
				광주·전라	98	9.7	98	9.7	1.00
				대구·경북	102	10.1	98	9.7	0.96
				부산·울산·경남	150	14.9	149	14.8	0.99
				강원·제주	43	4.3	42	4.2	0.97

성별

지역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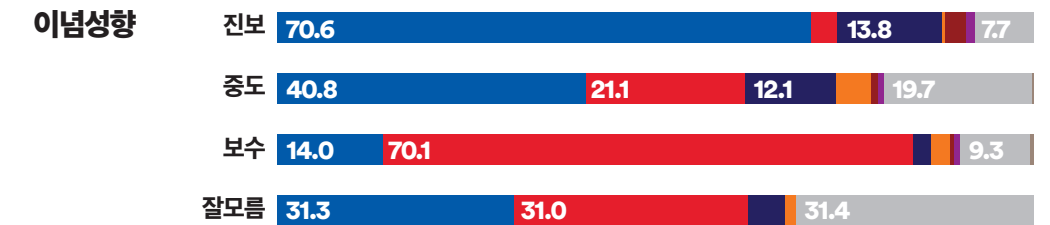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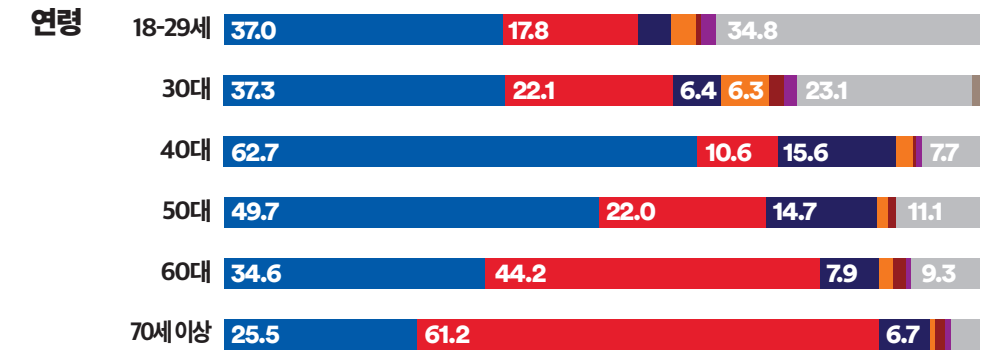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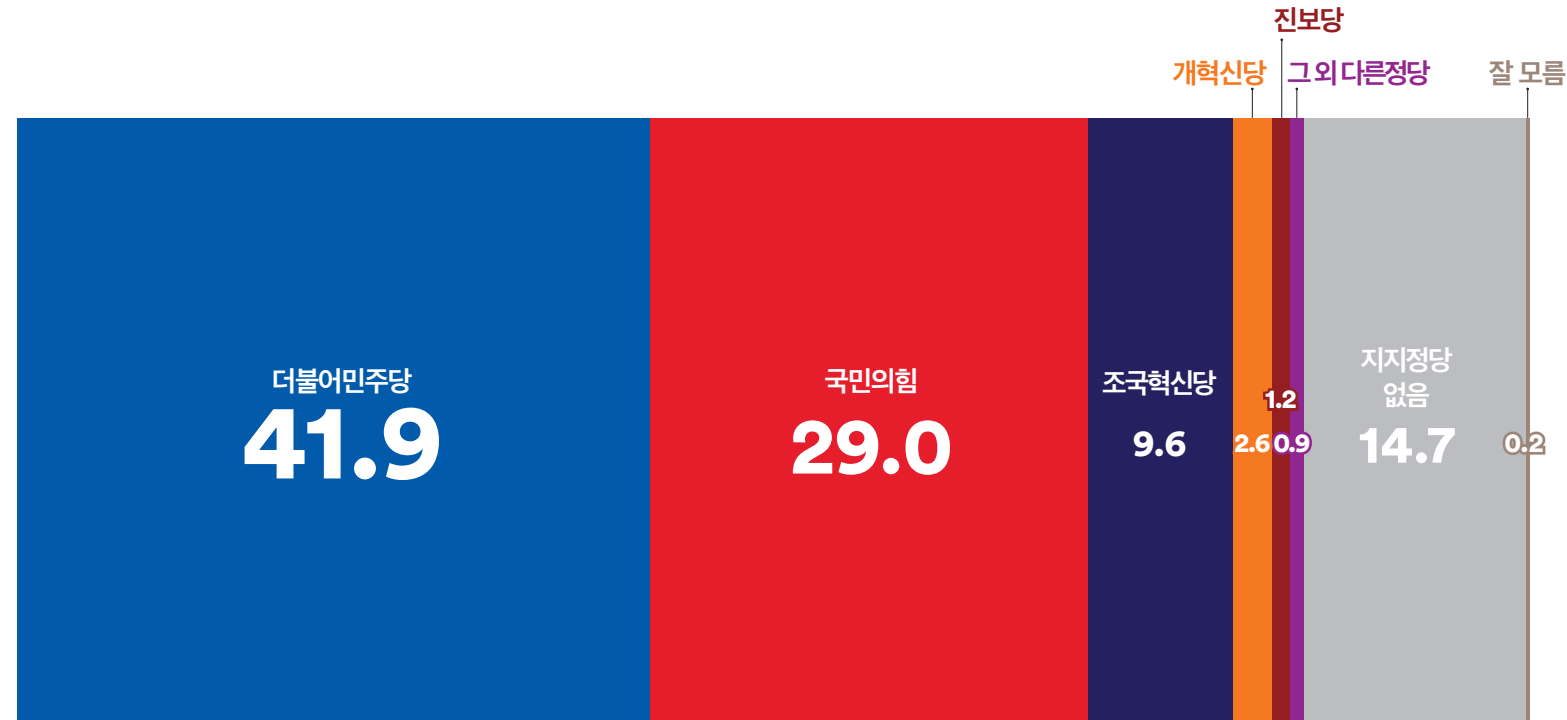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배율
표본크기	1,002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2	100.0%	1,002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21	52.0	495	49.4	0.95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여성	481	48.0	507	50.6	1.05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9월 30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18-29세	113	11.3	157	15.7	1.38
응답률	2.2% [총 통화시도 46,367명]			30대	142	14.2	149	14.9	1.04
조사기간	2024년 10월 4일 ~ 10월 5일(2일간)			40대	188	18.8	177	17.7	0.94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14	21.4	197	19.7	0.92
				60대	189	18.9	174	17.4	0.92
				70세 이상	156	15.6	148	14.8	0.94
			지역	서울	181	18.1	187	18.7	1.03
				인천·경기	321	32.0	322	32.1	1.00
				대전·세종·충청	112	11.2	107	10.7	0.95
				광주·전라	99	9.9	98	9.8	0.98
				대구·경북	98	9.8	97	9.7	0.98
				부산·울산·경남	149	14.9	149	14.9	1.00
				강원·제주	42	4.2	42	4.2	1.00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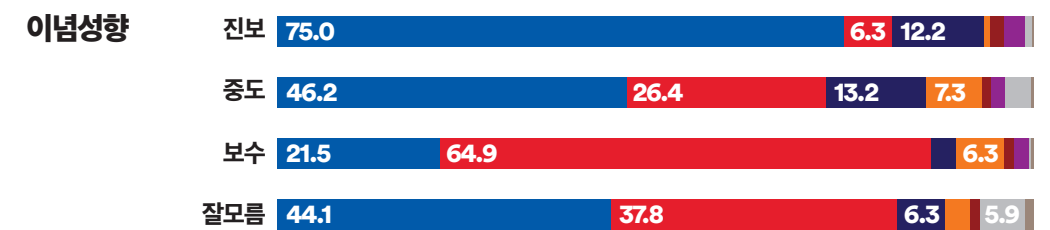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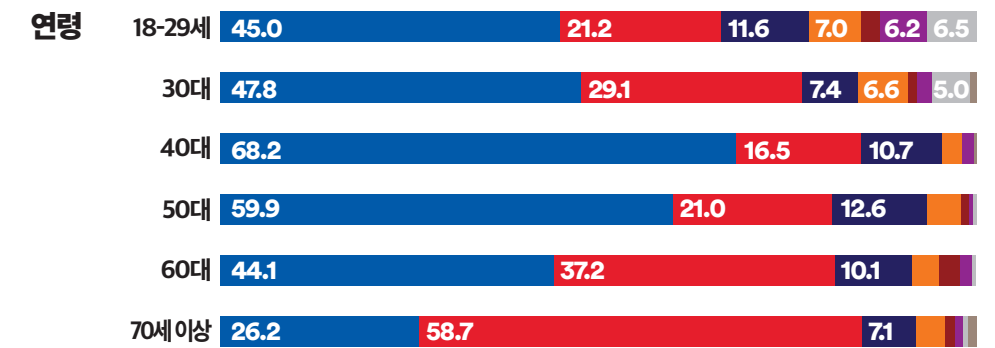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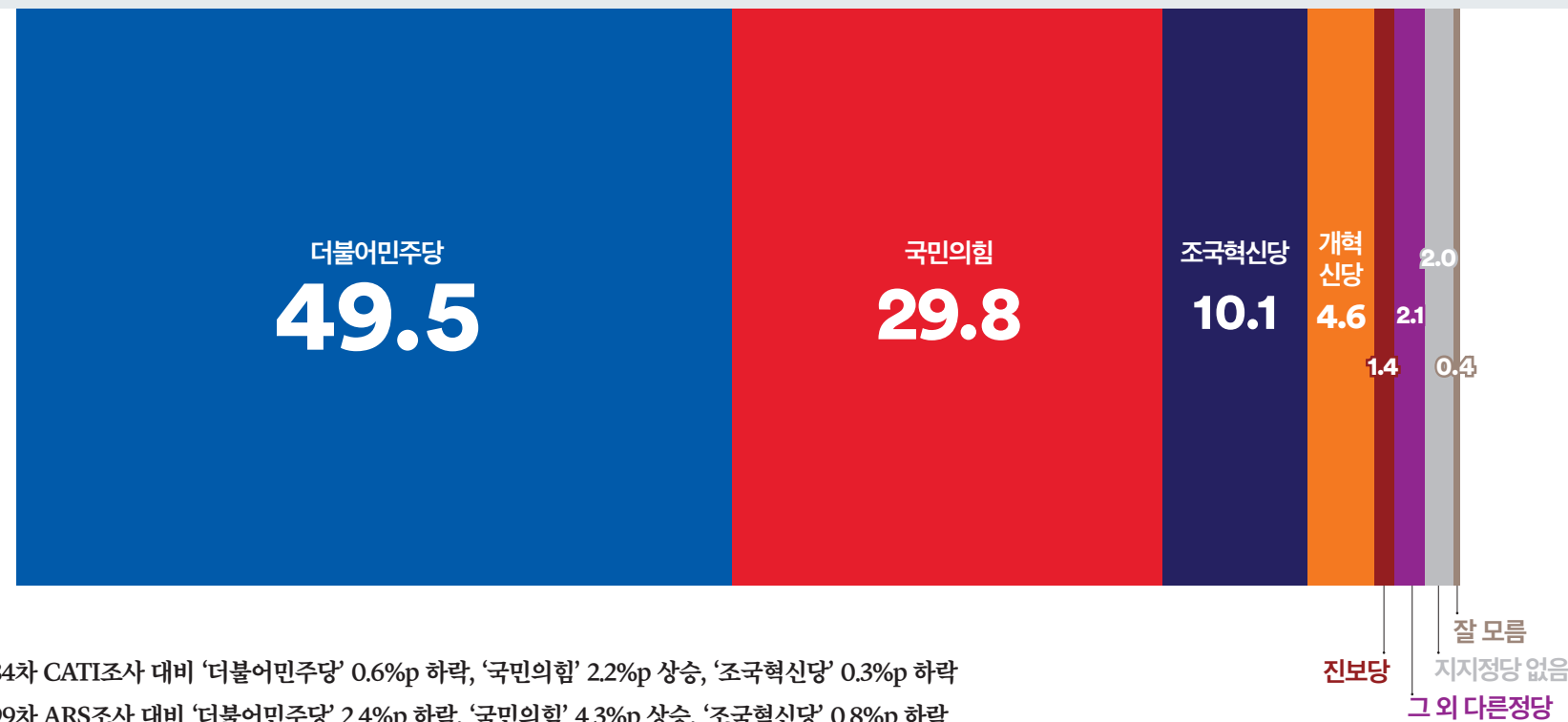
지역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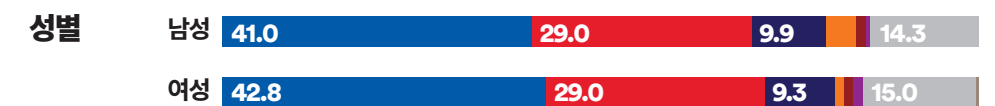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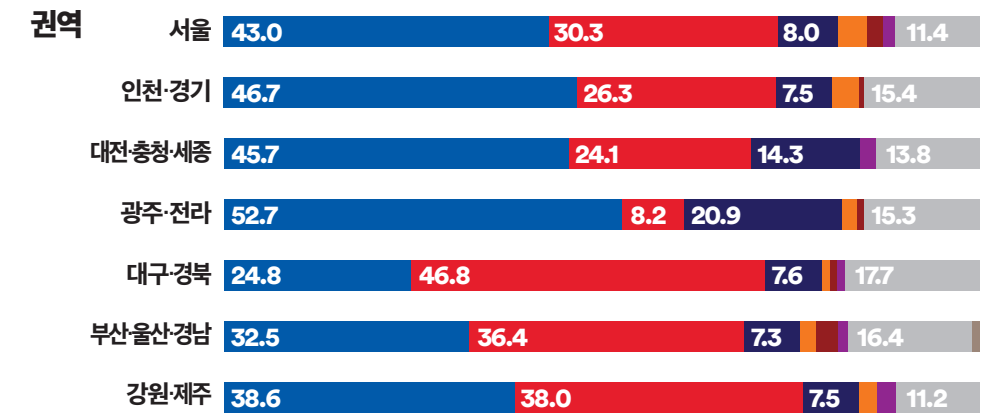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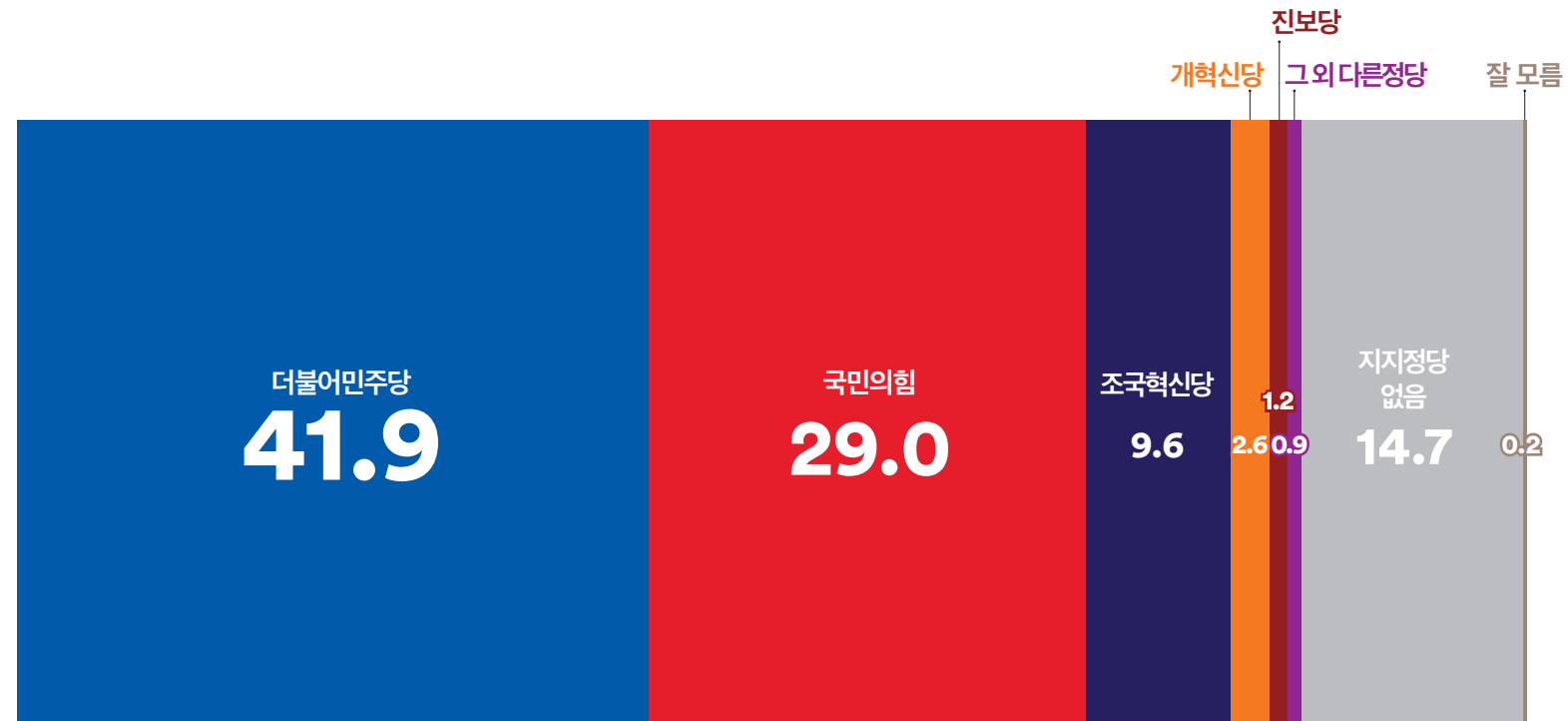


84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0.6%p 하락, '국민의힘' 2.2%p 상승, '조국혁신당' 0.3%p 하락
 99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4%p 하락, '국민의힘' 4.3%p 상승, '조국혁신당' 0.8%p 하락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12.9%p, ARS 19.7%p(지난 조사: CATI 15.7%p, ARS 26.4%p)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22.5%p, ARS 29.8%p(지난 조사: 25.6%p, ARS 37.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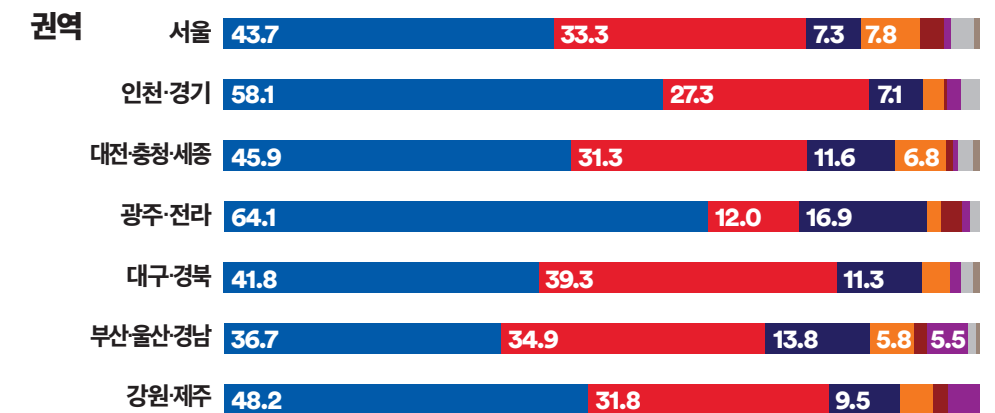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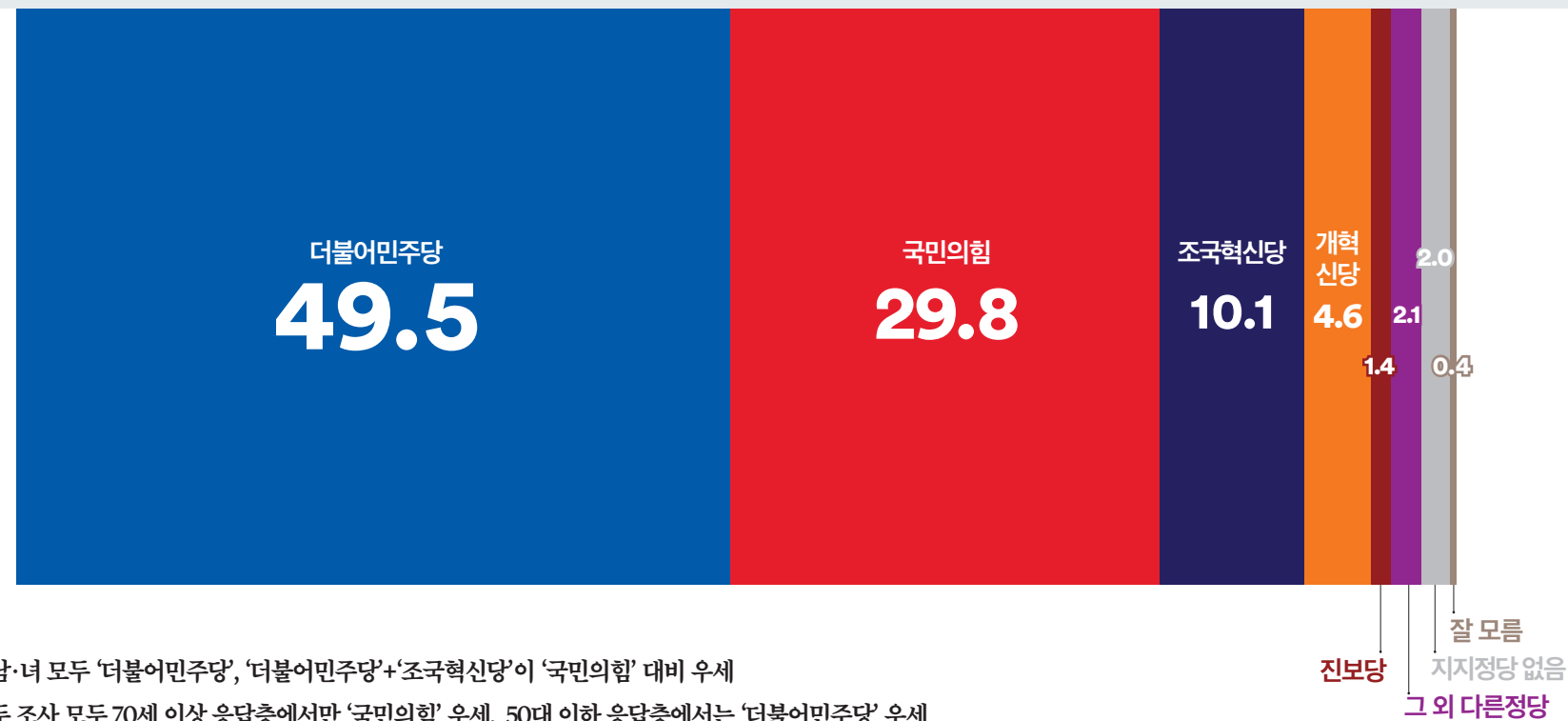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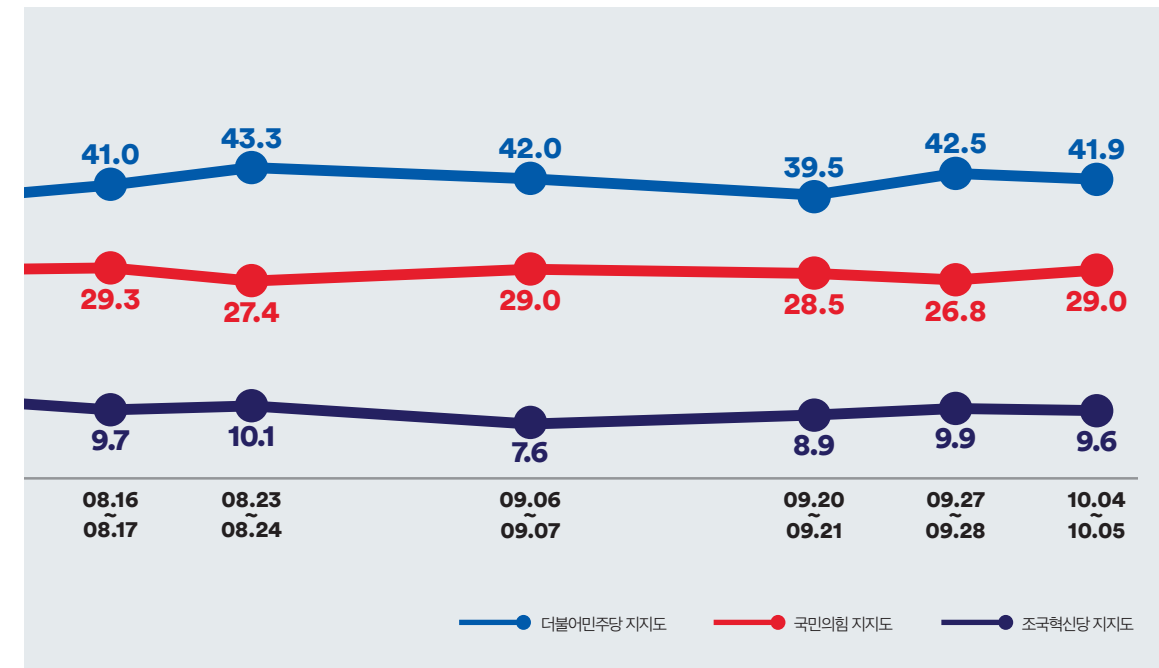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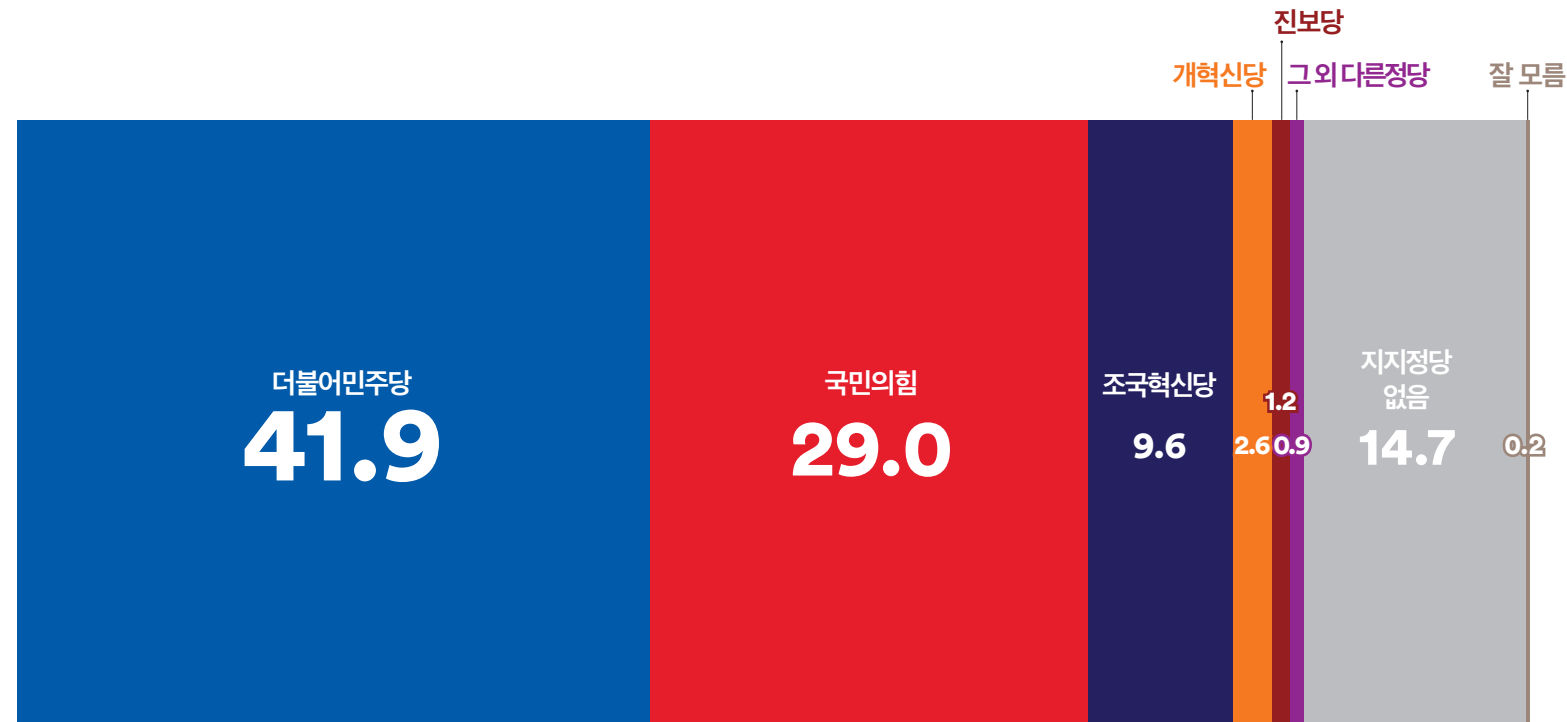


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대비 우세
 두 조사 모두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만 '국민의힘' 우세,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CATI는 경인권·충청권·호남권, ARS는 경인권과 호남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ARS PK 포함)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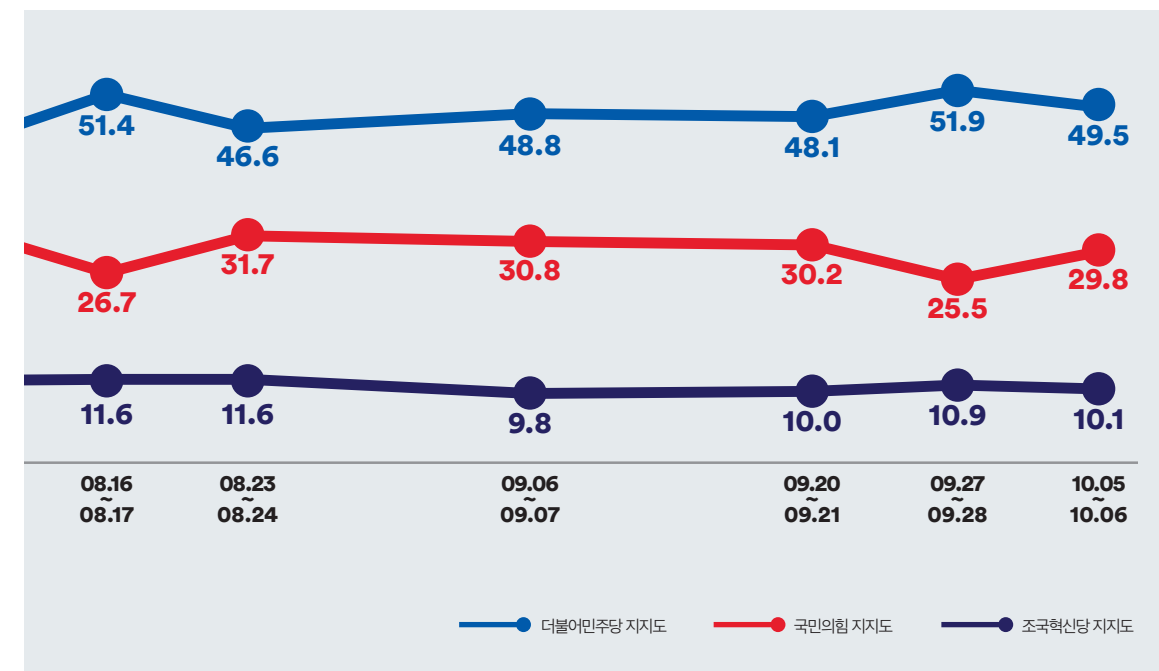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0.8%, '국민의힘' 21.1%, '조국혁신당' 12.1%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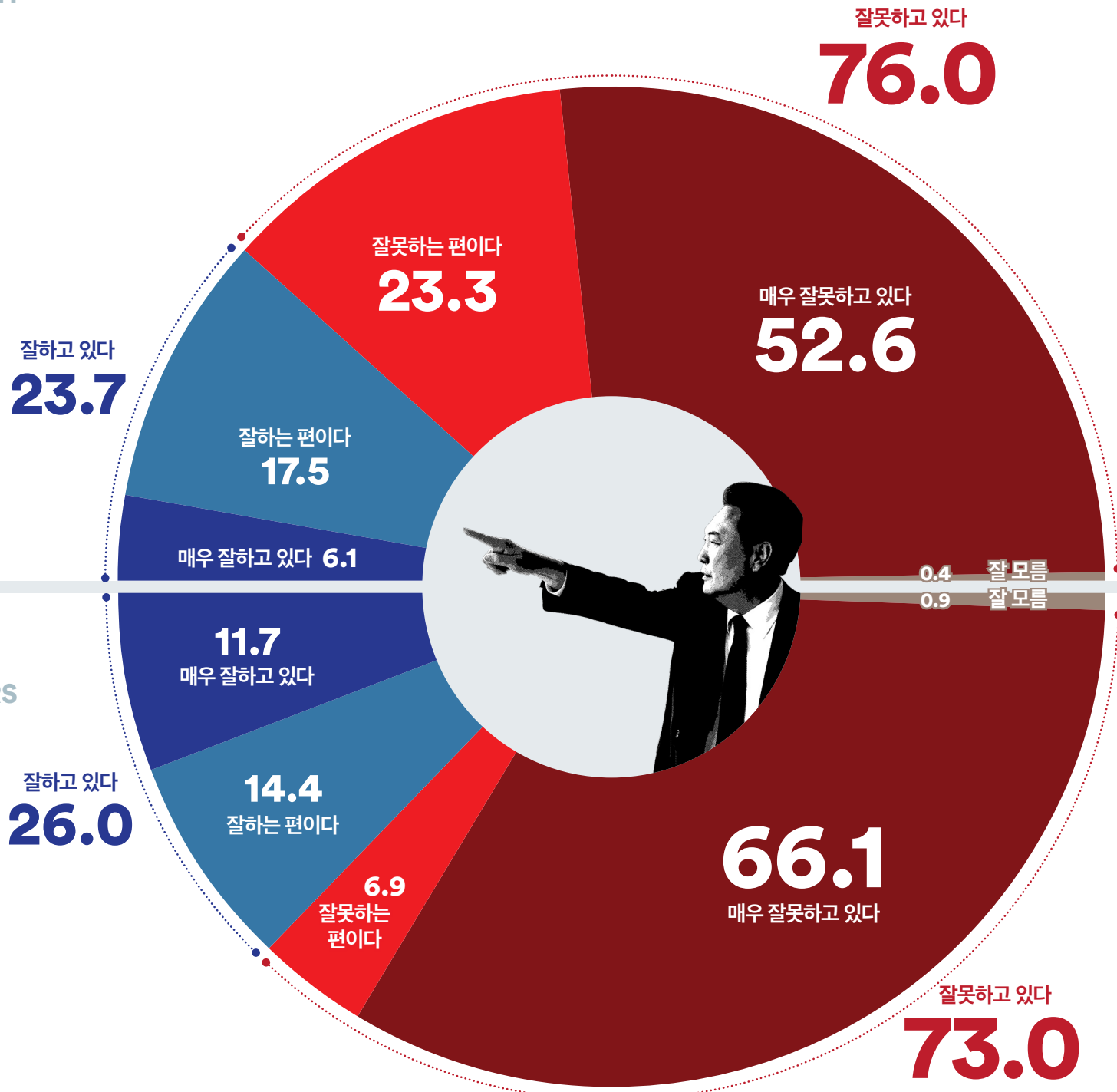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6.2%, '국민의힘' 26.4%, '조국혁신당' 13.2%의 지지율을 보임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1.8%p(84차: 32.4%p), ARS 33.0%p(99차: 46.0%p)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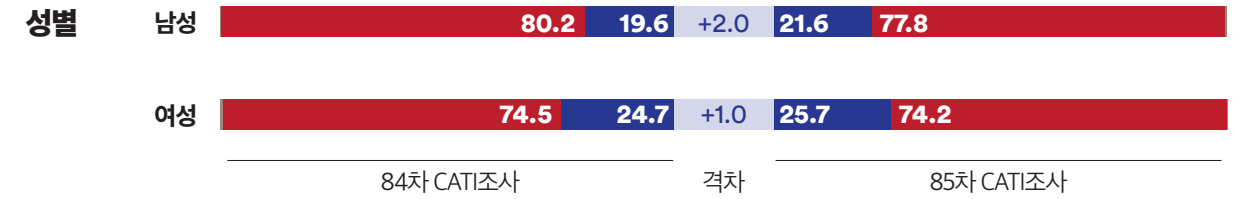


지난 84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1.5%p 상승, '부정' 평가 1.3%p 하락(격차 52.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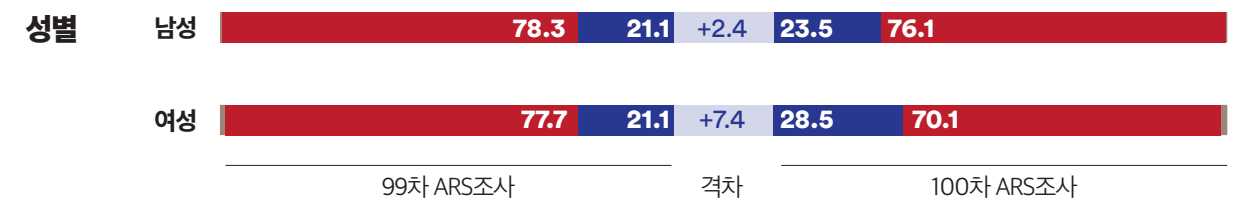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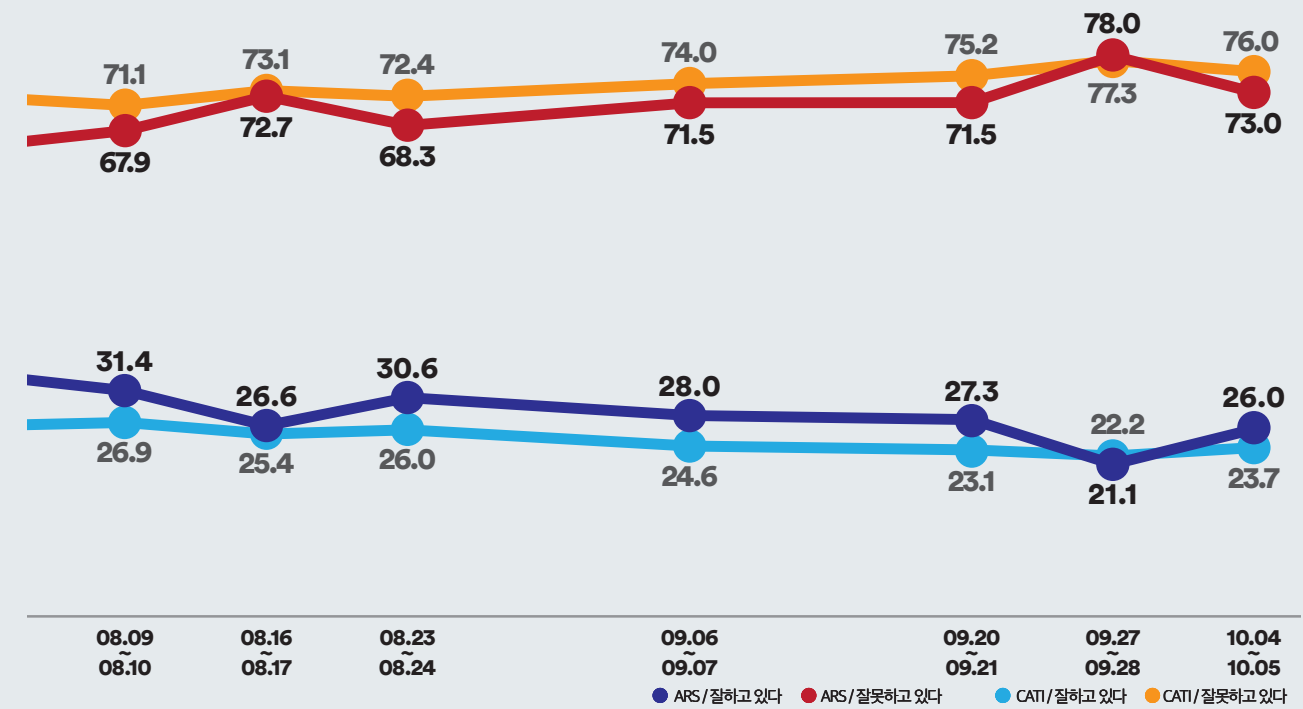
지난 99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4.9%p 상승, '부정' 평가 5.0%p 하락(격차 47.0%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우세, 70세 이상에서만 '긍정' 평가 소폭 앞섬

두 조사의 중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하고, 평가 간 격차는 CATI 68.5%p(지난 조사: 63.7%p), ARS 58.2%p(지난 조사: 65.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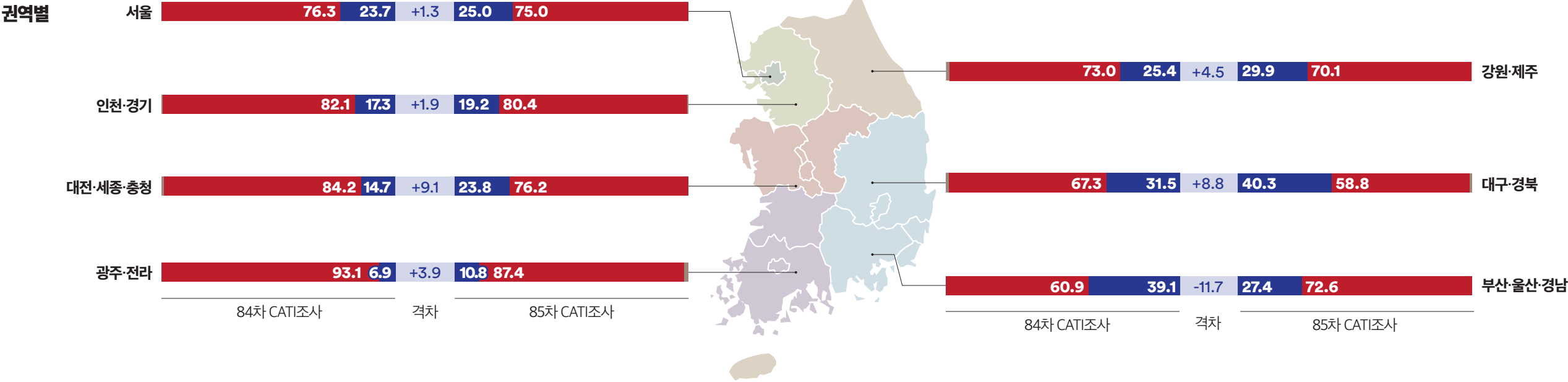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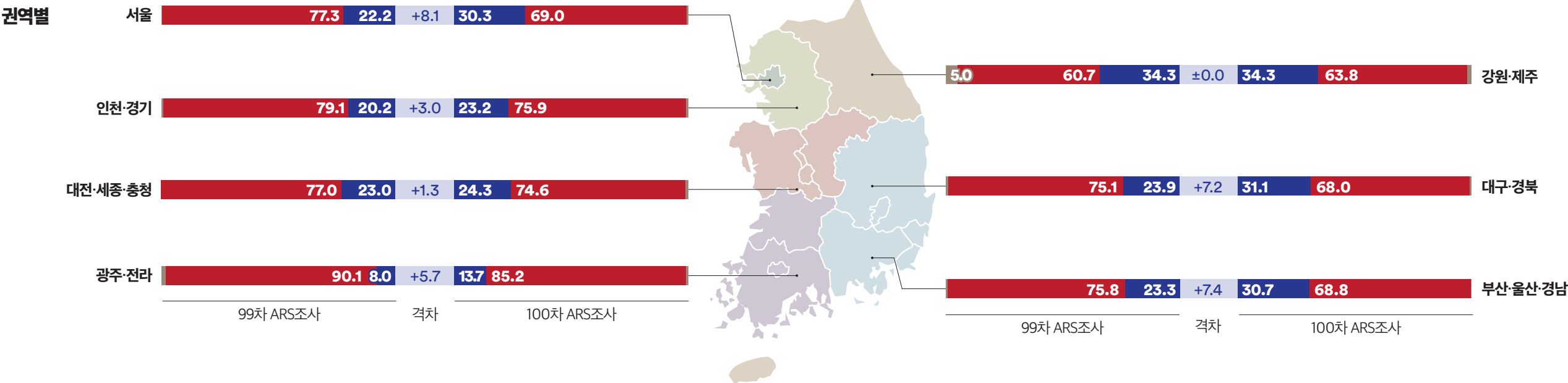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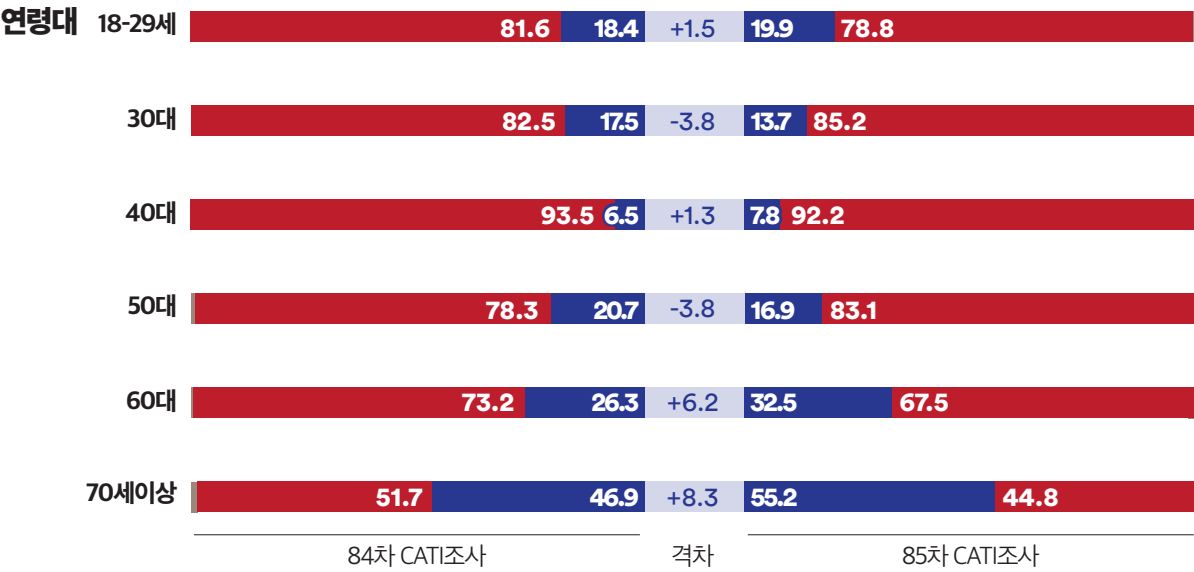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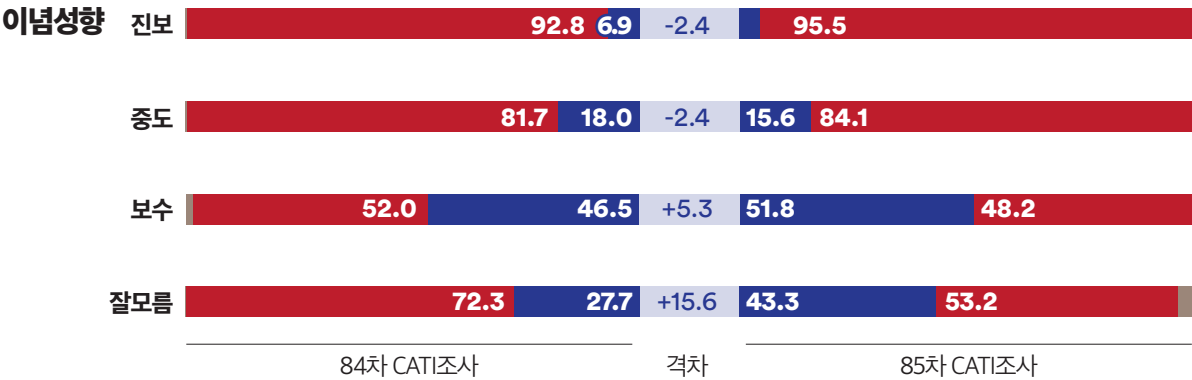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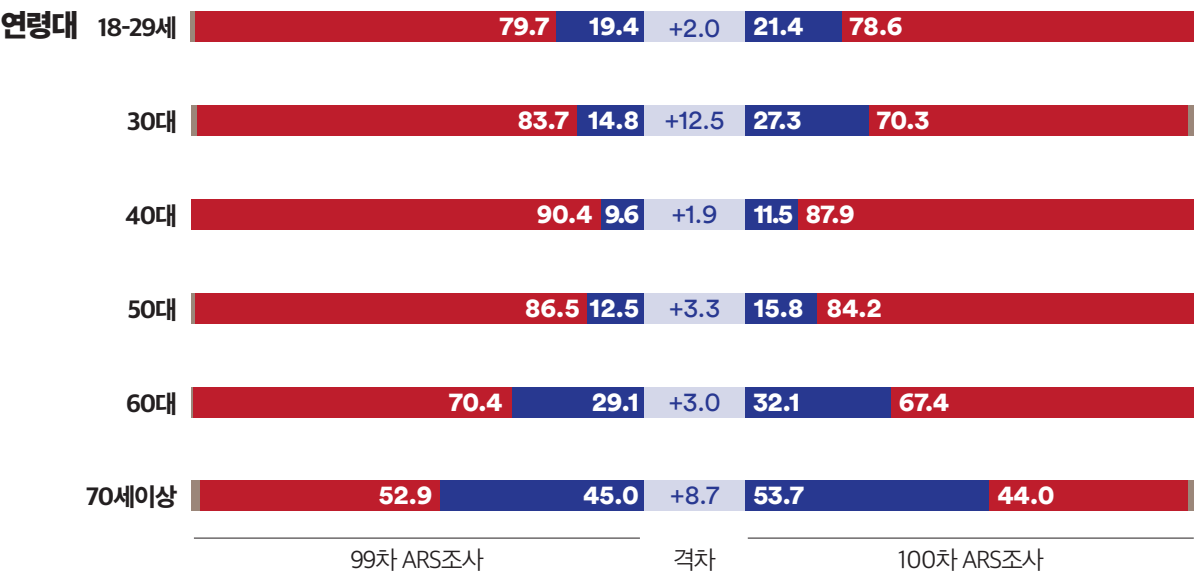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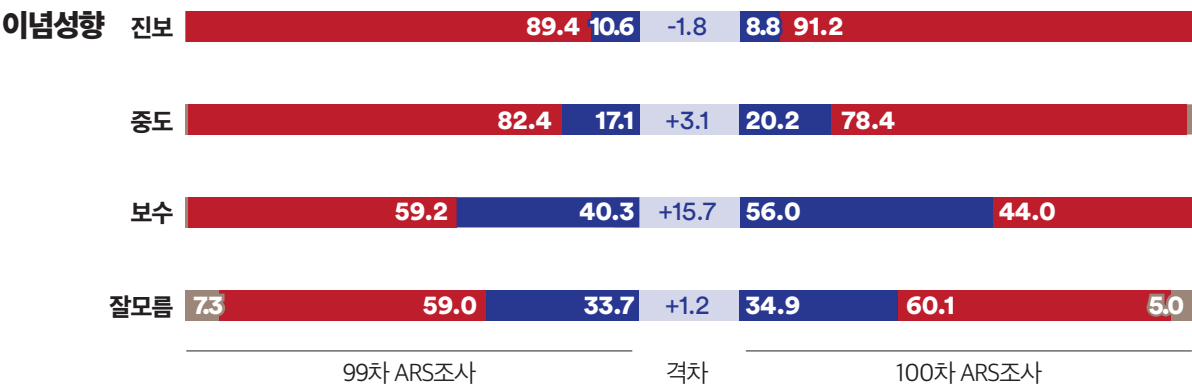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CATI 조사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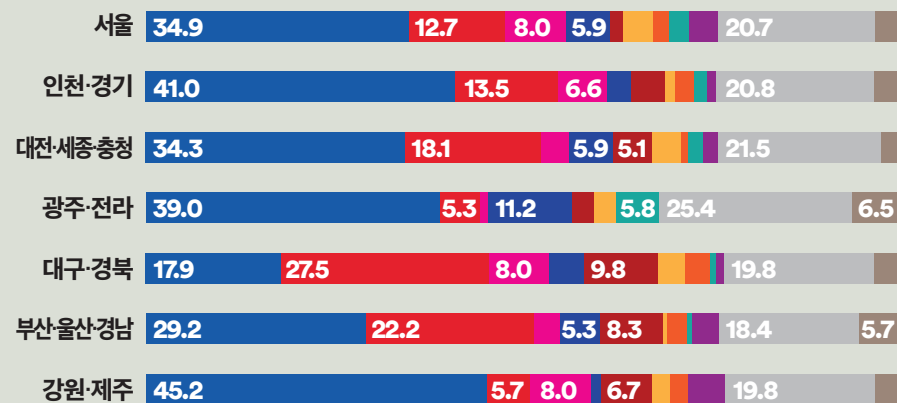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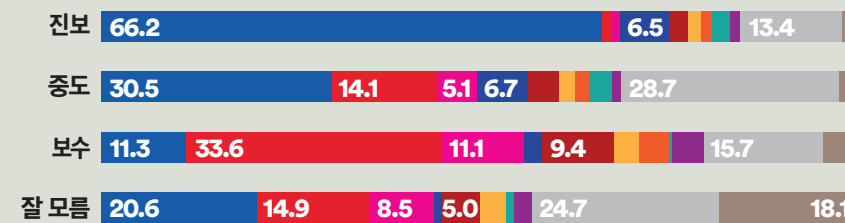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CATI조사에서 ‘이재명’이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19.7%p)
수도권, 호남권, 강원·제주에서 ‘이재명’이란 응답이 우세
40~60대 응답층에서는 ‘이재명’,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한동훈’이 가장 많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68.7%, ‘조국’ 3.0%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46.5%, ‘오세훈’ 14.0%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42.8%, ‘조국’ 33.0%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66.2%, ‘없음’ 13.4%, ‘조국’ 6.5% 순
중도층은 ‘이재명’ 30.5%, ‘없음’ 28.7%, ‘한동훈’ 14.1% 순
보수층은 ‘한동훈’ 33.6%, ‘없음’ 15.7%, ‘이재명’ 11.3%, ‘오세훈’ 11.1%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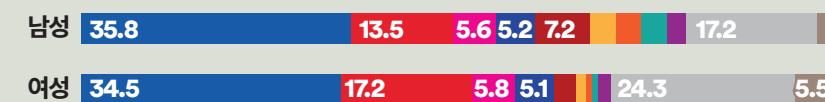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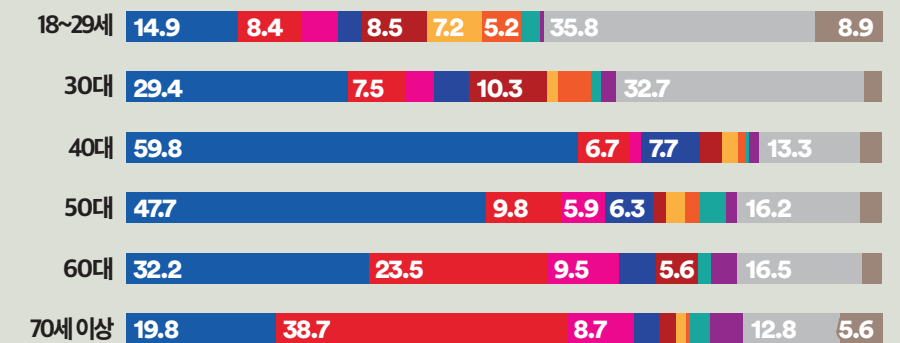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연령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CATI 조사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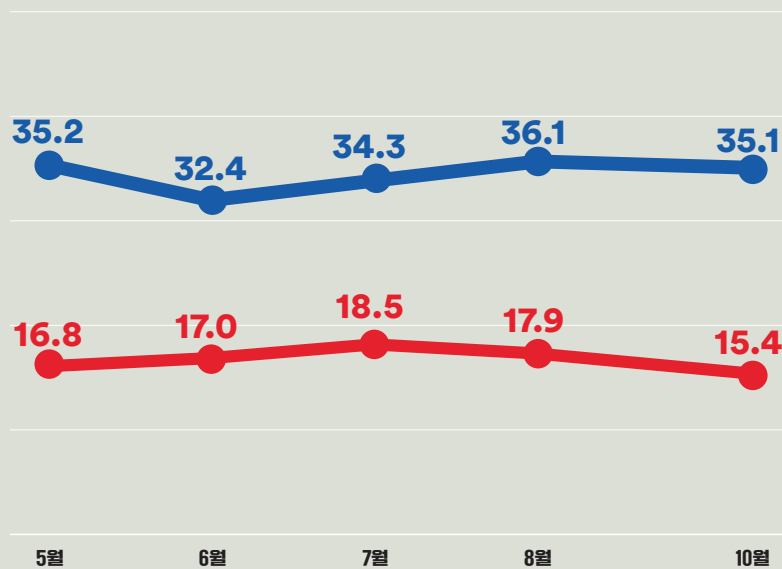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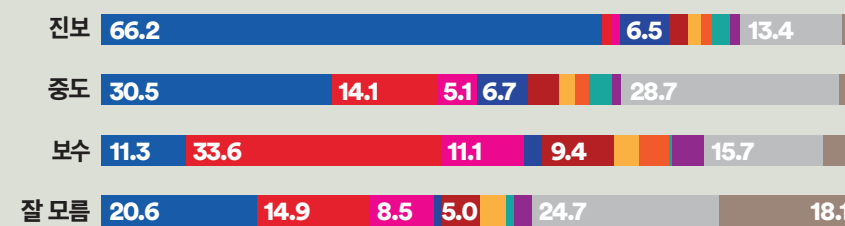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CATI조사에서
‘이재명’이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19.7%p)
수도권, 호남권, 강원·제주에서 ‘이재명’이란 응답이 우세
40~60대 응답층에서는 ‘이재명’,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한동훈’이 가장 많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68.7%, ‘조국’ 3.0%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46.5%, ‘오세훈’ 14.0%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42.8%, ‘조국’ 33.0%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66.2%, ‘없음’ 13.4%, ‘조국’ 6.5% 순
중도층은 ‘이재명’ 30.5%, ‘없음’ 28.7%, ‘한동훈’ 14.1% 순
보수층은 ‘한동훈’ 33.6%, ‘없음’ 15.7%, ‘이재명’ 11.3%, ‘오세훈’ 11.1%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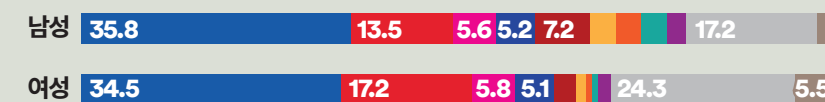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추이: 이재명 vs 한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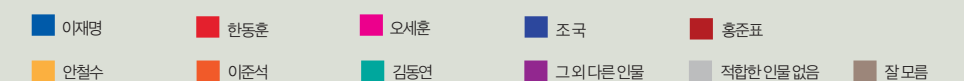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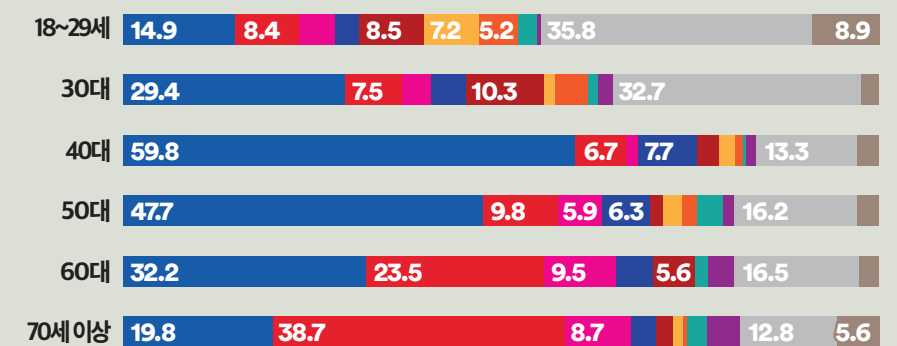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연령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ARS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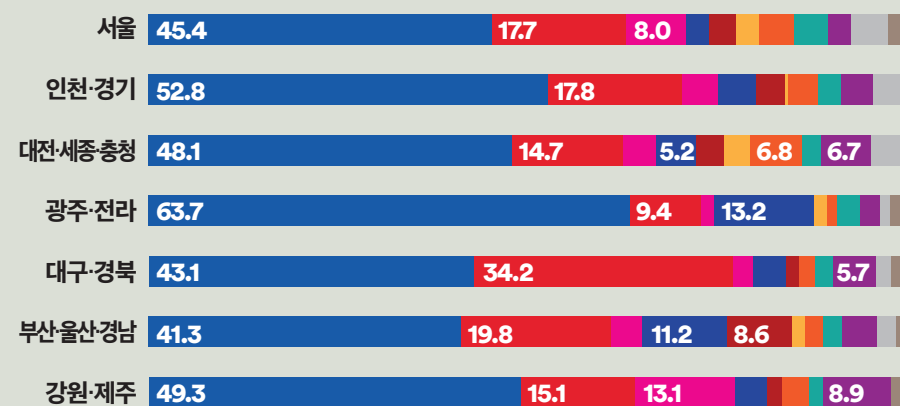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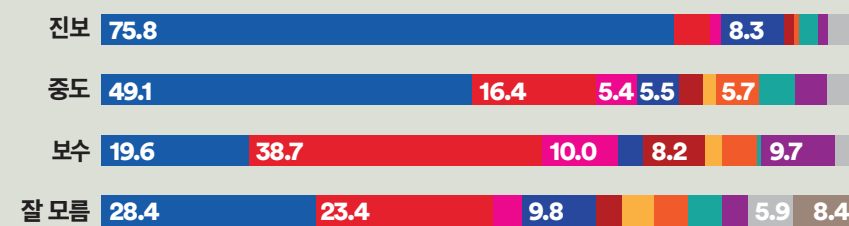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ARS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재명’이라고 응답,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30.8%p)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이재명’이란 응답이 가장 많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4.3%, ‘조국’ 4.1%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55.1%, ‘오세훈’ 13.3%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49.7%, ‘조국’ 32.4%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75.8%, ‘조국’ 8.3% 순
중도층은 ‘이재명’ 49.1%, ‘한동훈’ 16.4% 순
보수층은 ‘한동훈’ 38.7%, ‘이재명’ 19.6%, ‘오세훈’ 10.0%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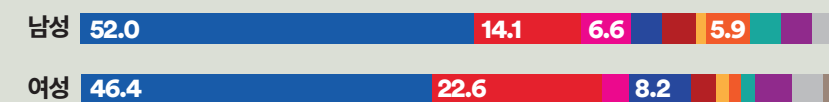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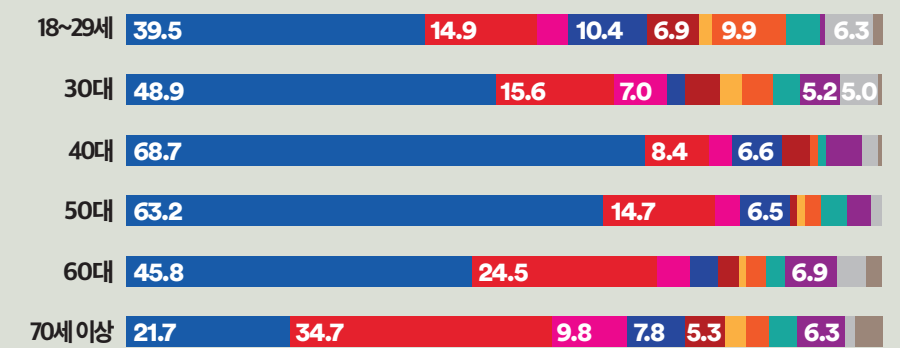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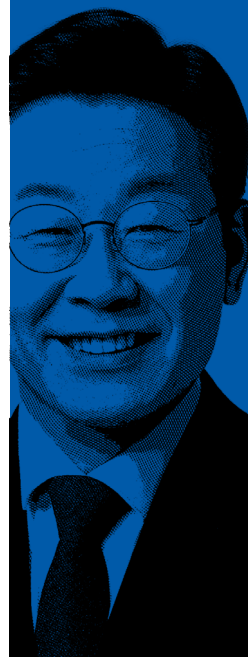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ARS 조사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RS

이재명
49.2



한동훈
18.4



오세훈
5.1



조국
6.2



홍준표
3.8



안철수
1.5



이준석
3.7



김동연
3.1



그 외 다른인물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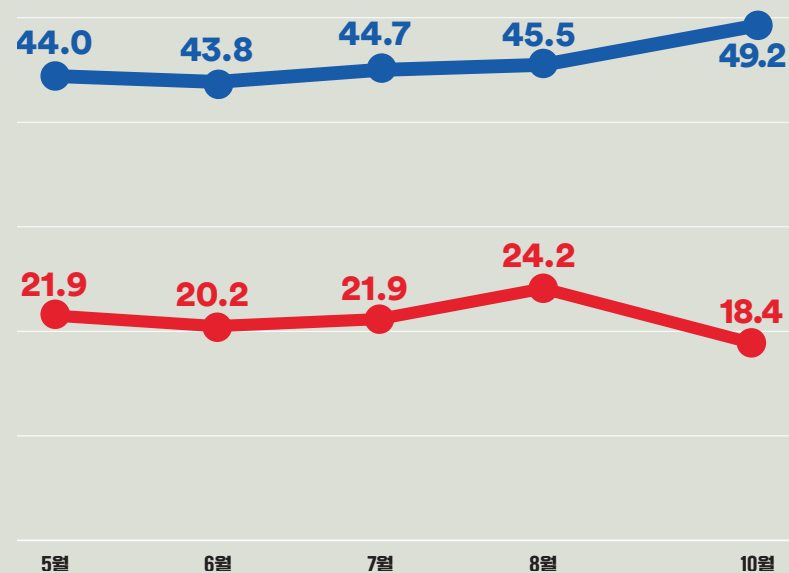
적합한 인물이 없다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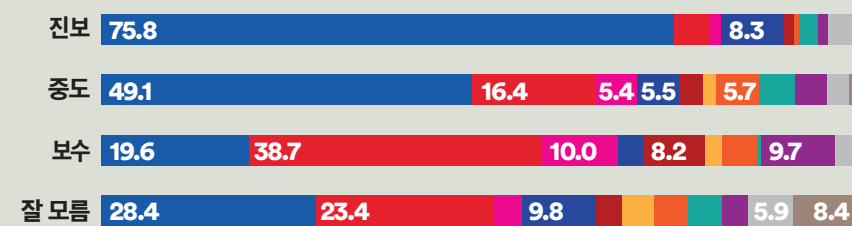
잘 모름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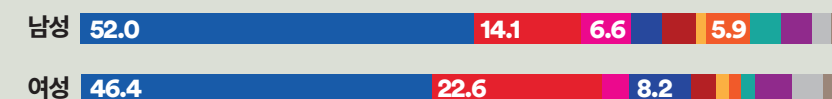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추이: 이재명 vs 한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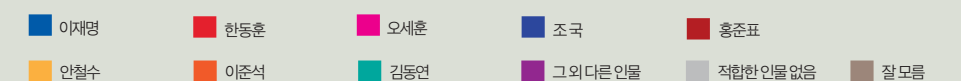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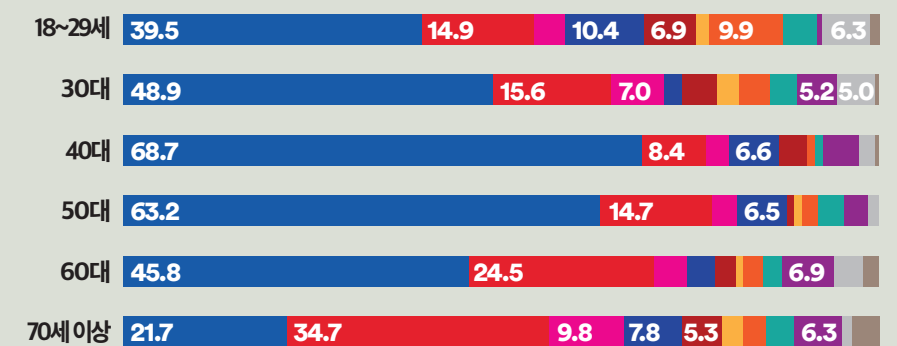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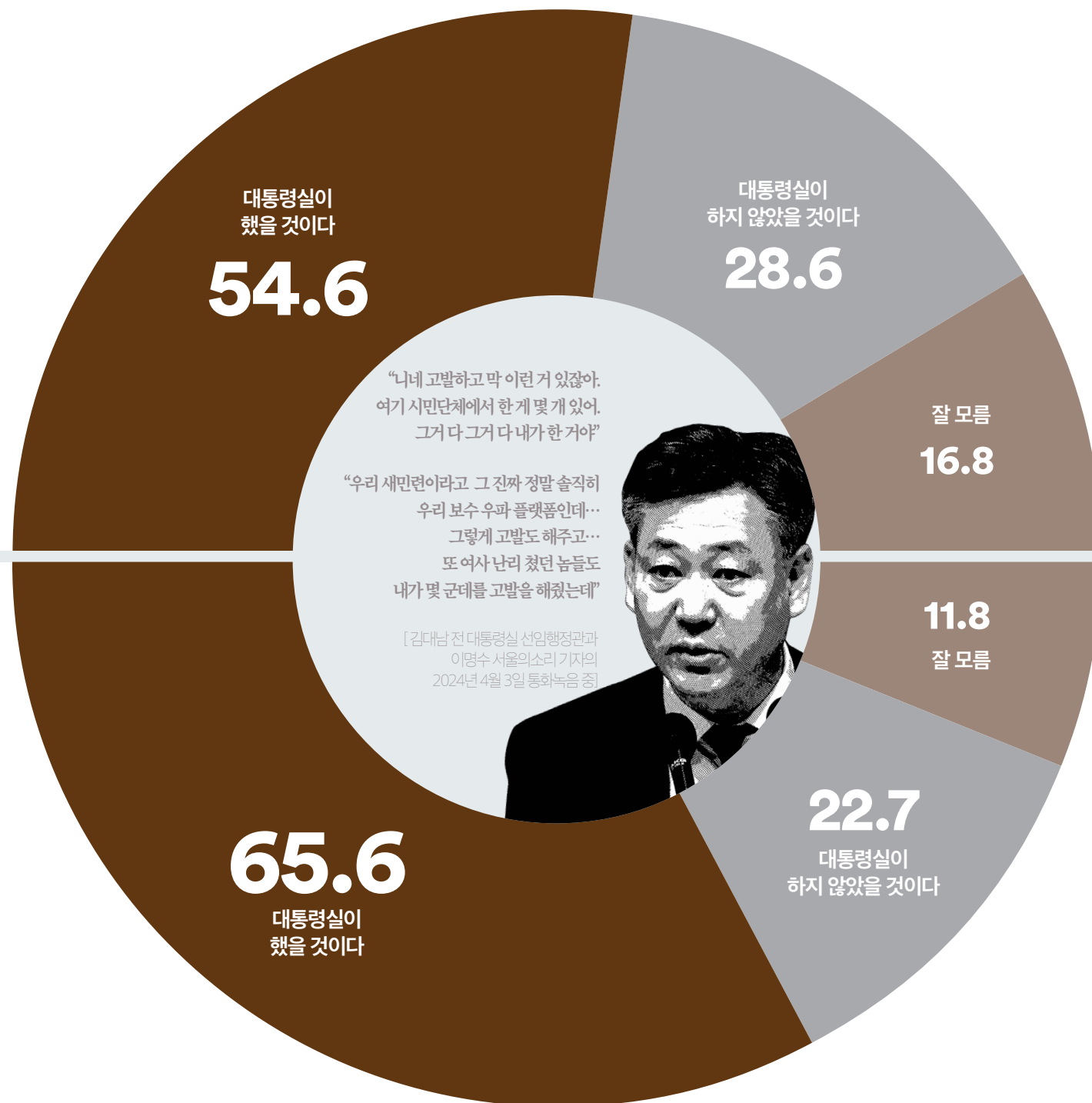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ARS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재명’이라고 응답,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30.8%p)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이재명’이란 응답이 가장 많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4.3%, ‘조국’ 4.1%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55.1%, ‘오세훈’ 13.3%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49.7%, ‘조국’ 32.4%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75.8%, ‘조국’ 8.3% 순
중도층은 ‘이재명’ 49.1%, ‘한동훈’ 16.4% 순
보수층은 ‘한동훈’ 38.7%, ‘이재명’ 19.6%, ‘오세훈’ 10.0% 순으로 응답

Q.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고발하도록 보수성향 시민단체를 사주했다’는 녹취가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실제로 비판적 언론에 대해 이런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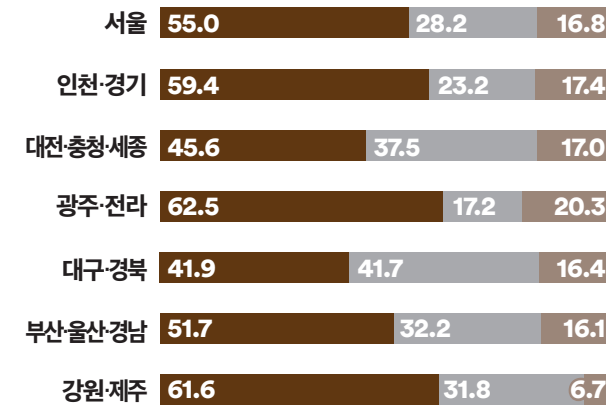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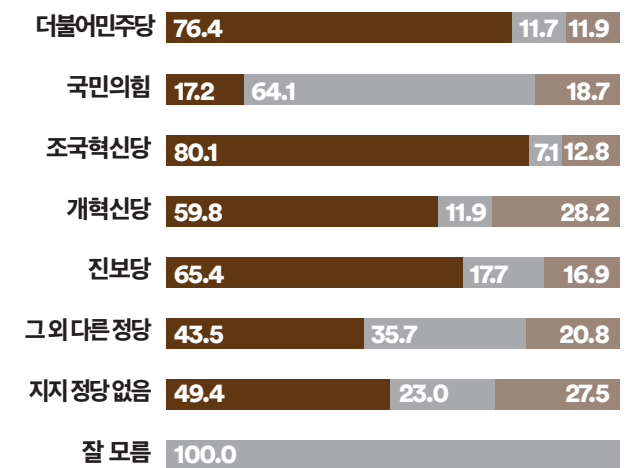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에 담긴 비판언론 고발사주는 ‘대통령실이 지시 했을 것’이라고 생각
ARS조사의 모든 권역, CATI조사의 수도권과 호남, PK, 강원·제주에서는 ‘대통령실이 지시했을 것’이라는 응답 우세
CATI조사의 50대 이하 응답층과 ARS조사의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도 대통령실이 지시했을 것’이라는 응답 우세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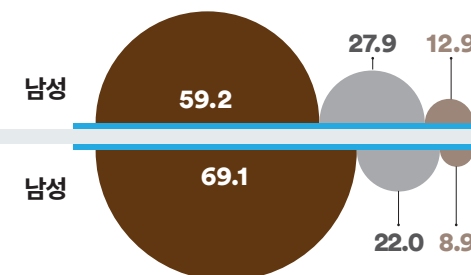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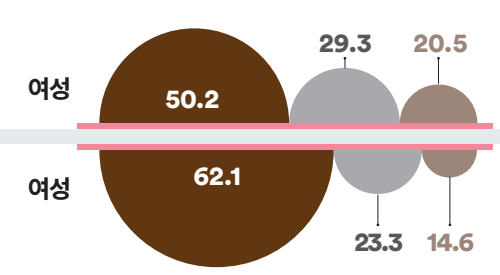
남성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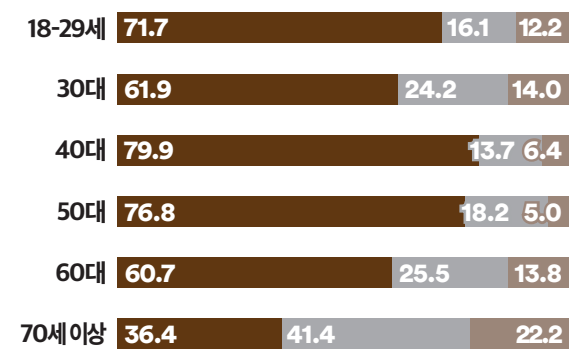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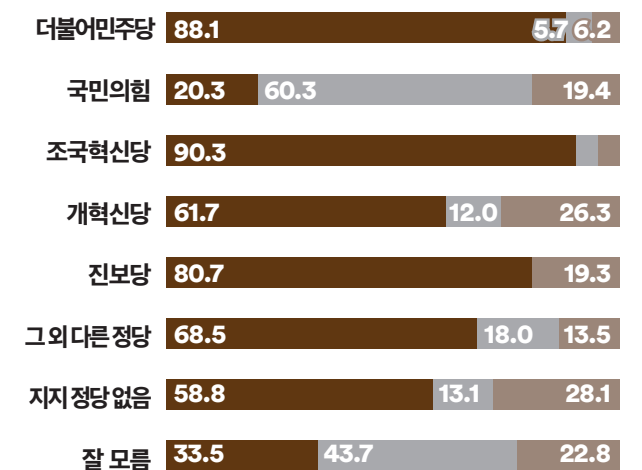
여성



연령



정당지지도



■ 대통령실이 했을 것 ■ 대통령실이 하지 않았을 것 ■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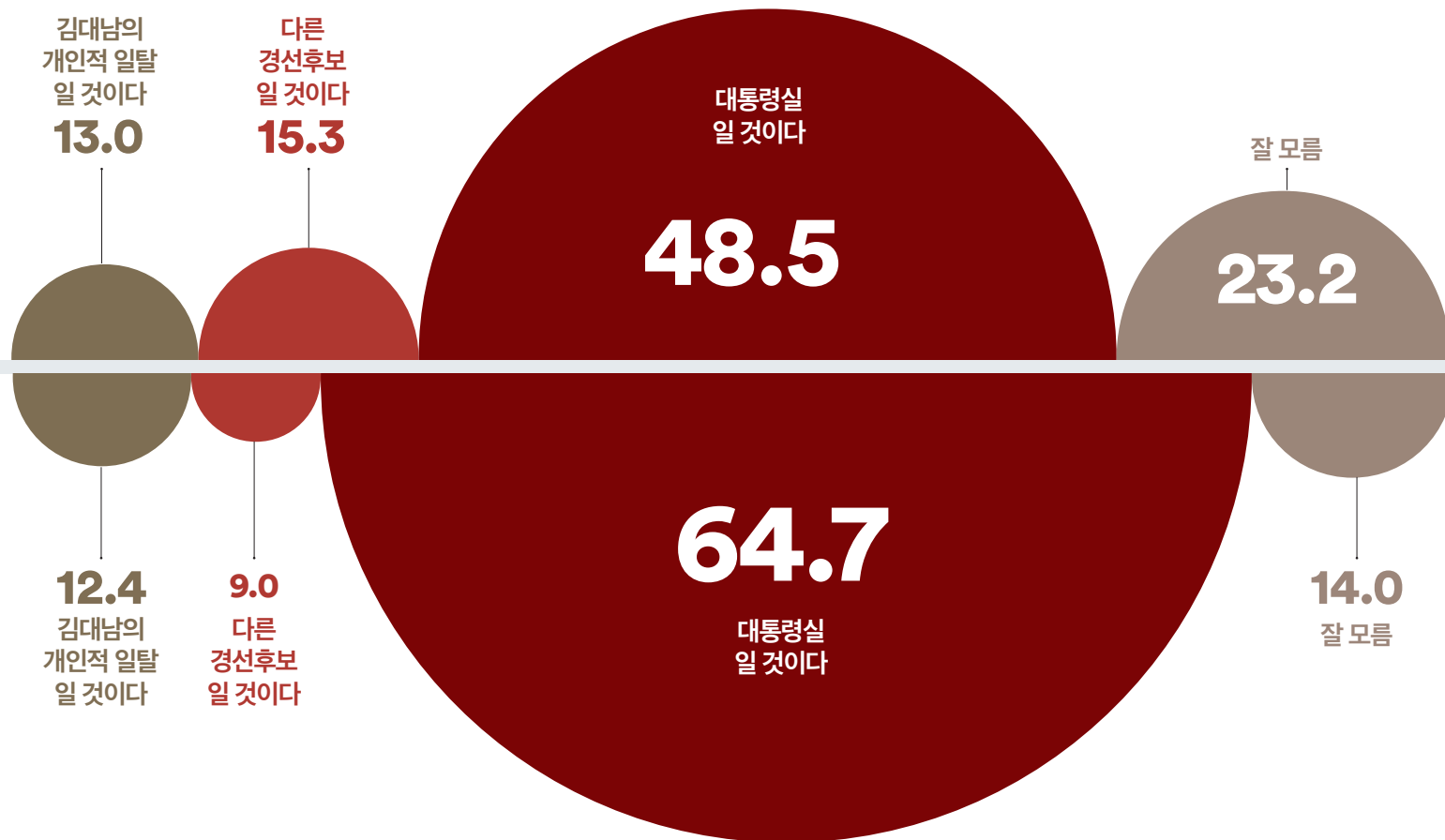
Q.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후보에 대해 공격해 달라’며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이 언론사 기자에게 요청한 녹취도 공개되었고, 해당 언론사에 관련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CATI

“여사하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때문에 진짜로 야.. 죽으려고 하더라고
야 니네가 이번에 그거 잘 기획해서 서울의 소리에서 (한동훈을) 치면
아주 여사가 니네 이명수.. 야.. 들었다 났다 했다고 좋아하겠는데?”
“한 70억을 여론조사 하는데 썼대요. 근데 그 70억의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선용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 두 건은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서면 조사를 했나봐. 그게 사실은 기업으로 따지면 자기를..
그걸 했으니 황령이지 황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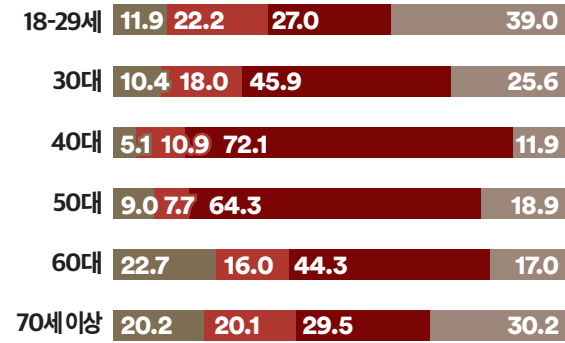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2024년 7월 10일 통화녹음 중]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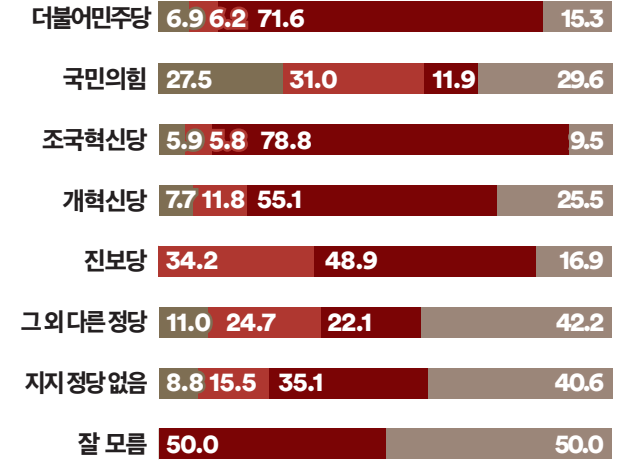


응답자 절반 혹은 그 이상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관련 당무개입의 배후가 ‘대통령실일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응답
모든 권역과 연령대 및 성별에서 ‘대통령실’이라는 응답이 ‘김대남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응답 비율보다 앞서거나 우세
CATI에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대통령실’이라는 응답이 높았고,
보수층에서는 ‘대통령실’과 ‘김대남 개인’ ‘다른 경선후보’라는 3가지 응답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ARS에서 진보, 중도, 보수층에서 모두 ‘대통령실’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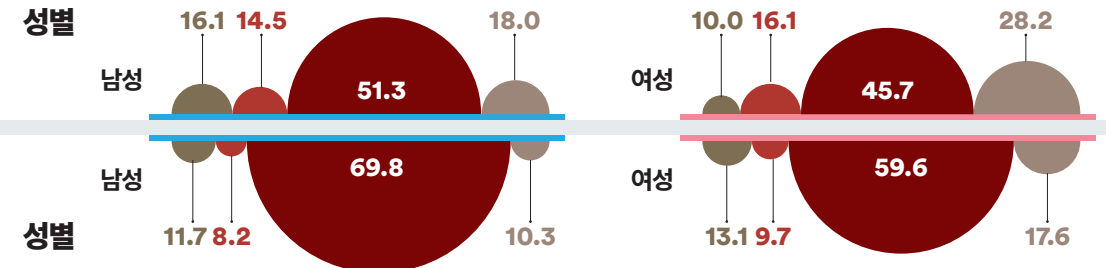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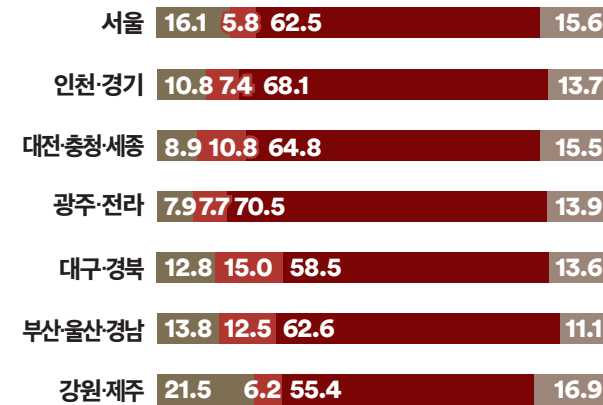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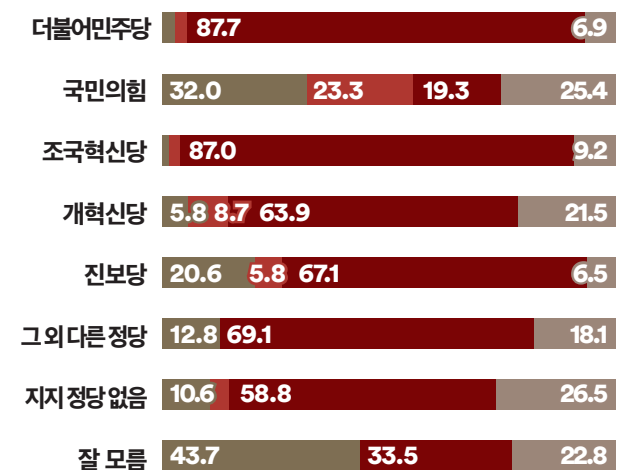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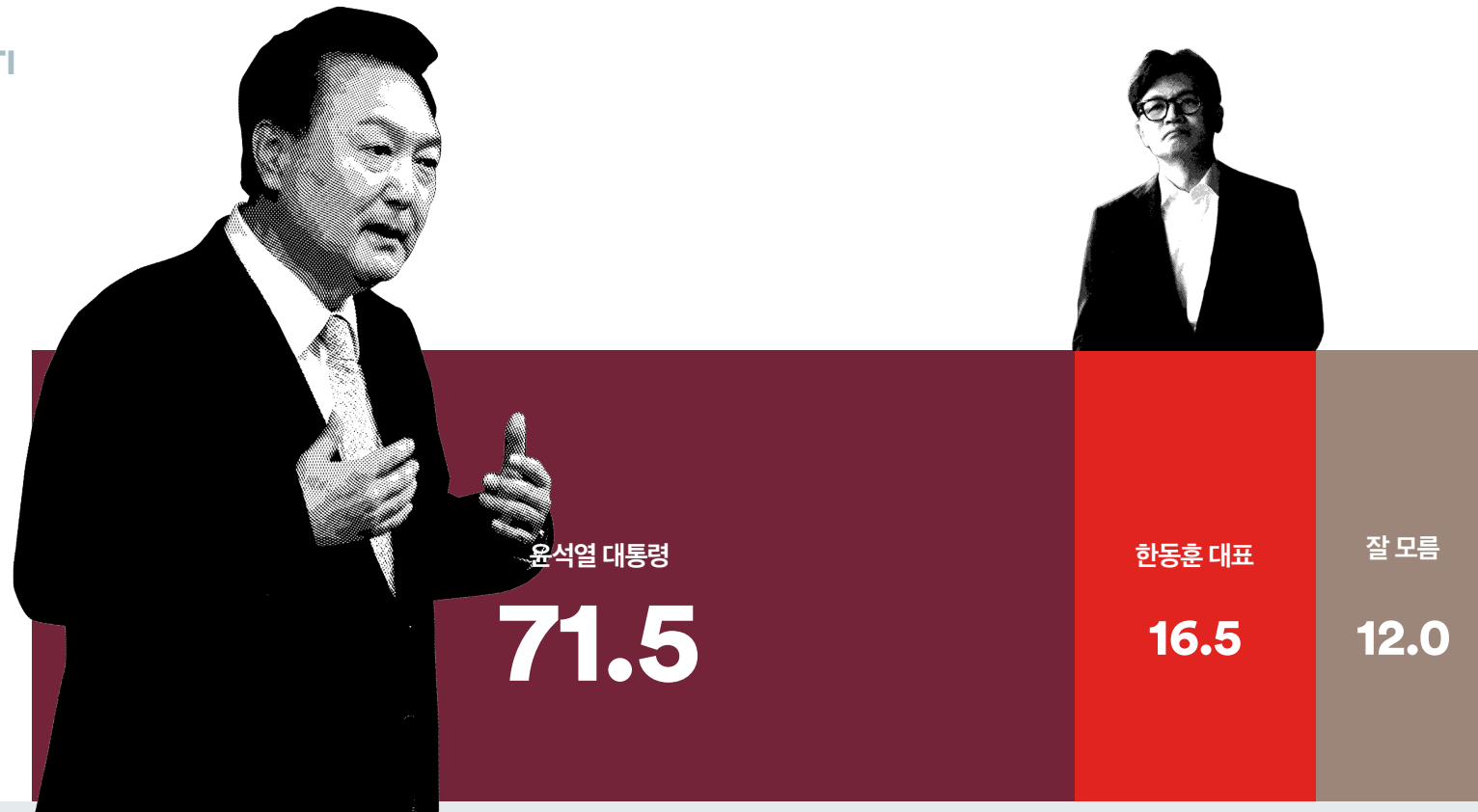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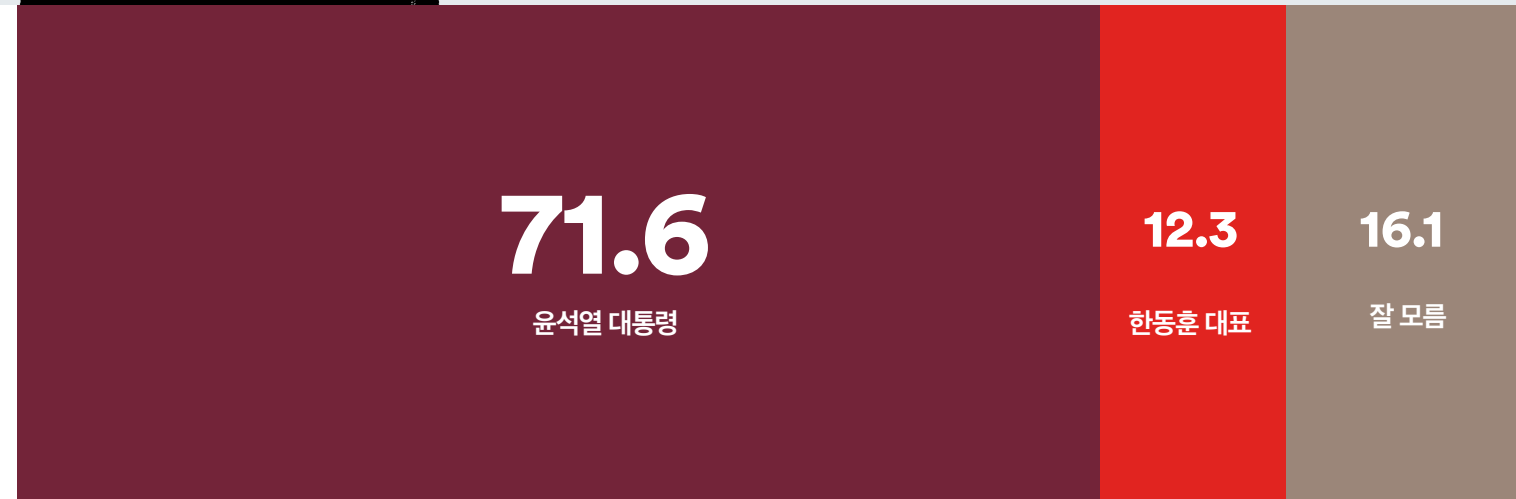
■ 김대남의 개인적 일탈 ■ 다른 경선후보 ■ 대통령실 ■ 잘 모름

Q.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의 대통령 독대 요구가 거절된 후, 대통령 주재 원내지도부 만찬에 한동훈 대표가 배제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정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책임이 다음 중 누구에게 더 크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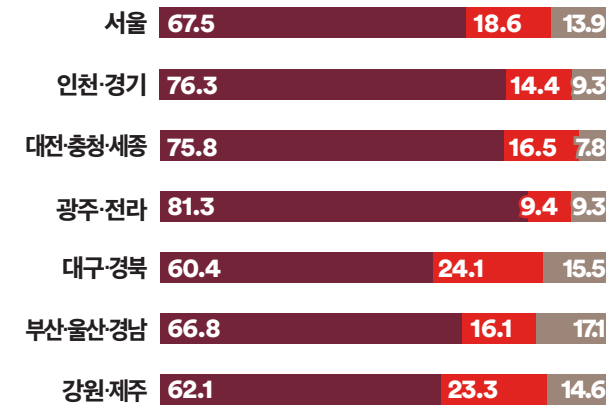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당정 갈등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응답(응답간 격차 CATI 55.0%p, ARS 59.3%p)

모든 권역과 성별 및 연령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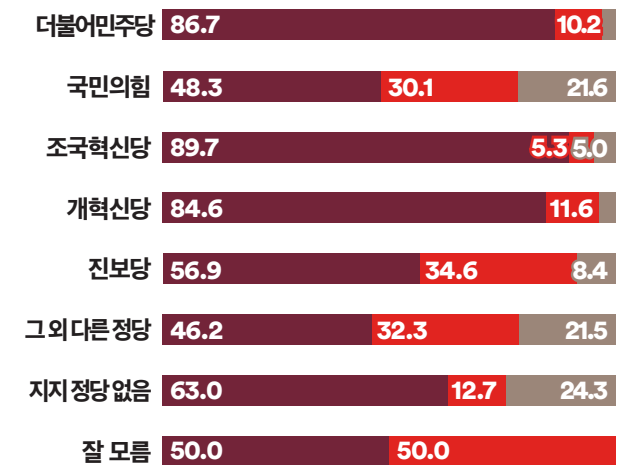
두 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란 응답이 우세(격차: CATI 18.2%p, ARS 20.7%p)

두 조사의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란 응답이 우세(격차: CATI 32.8%p, ARS 35.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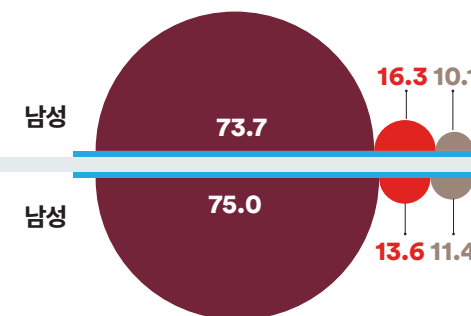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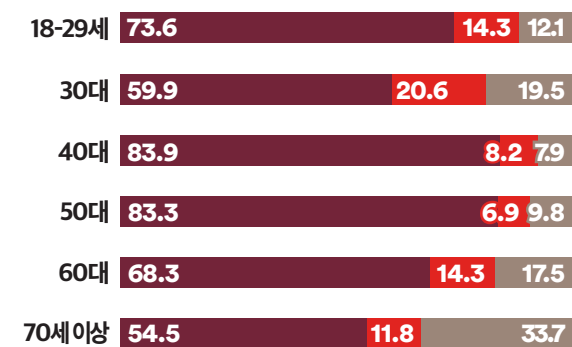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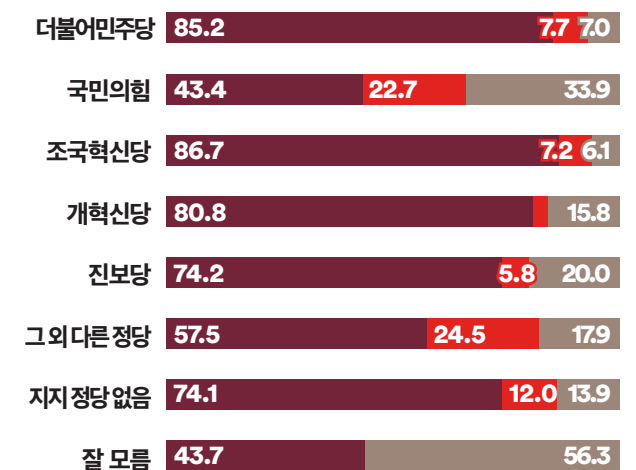
성별



연령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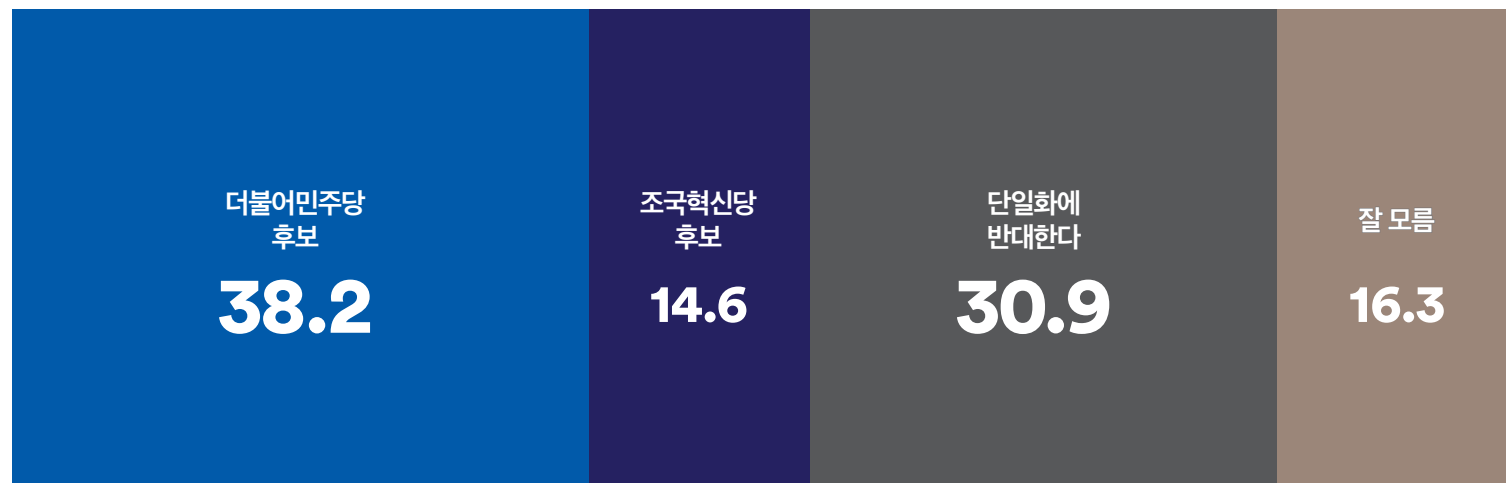


■ 윤석열 대통령 ■ 한동훈 대표 ■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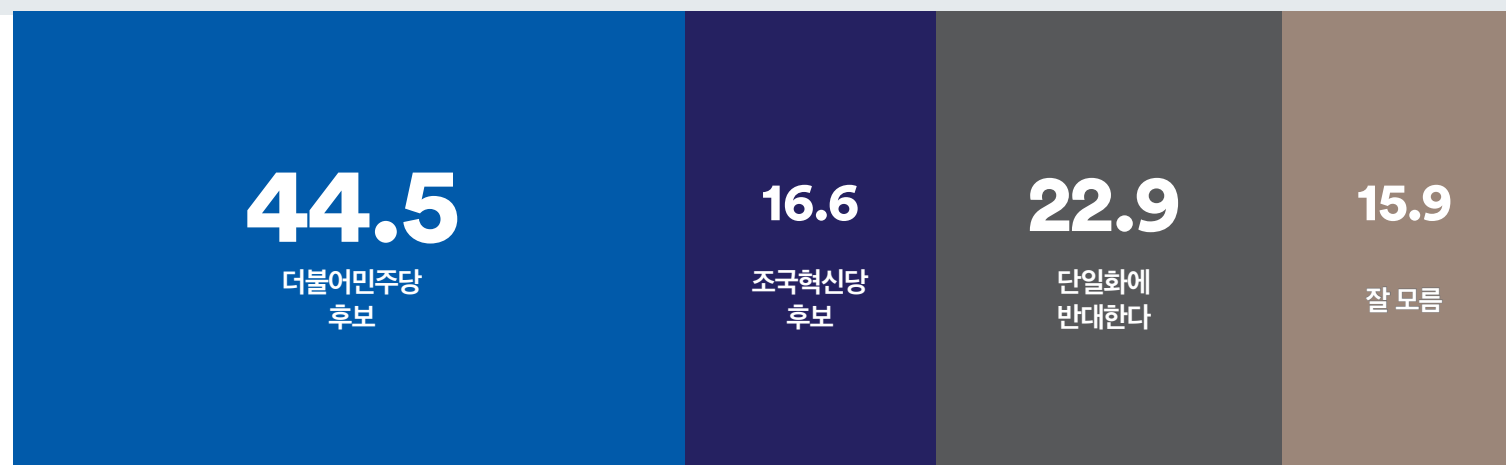


Q. 16일 부산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느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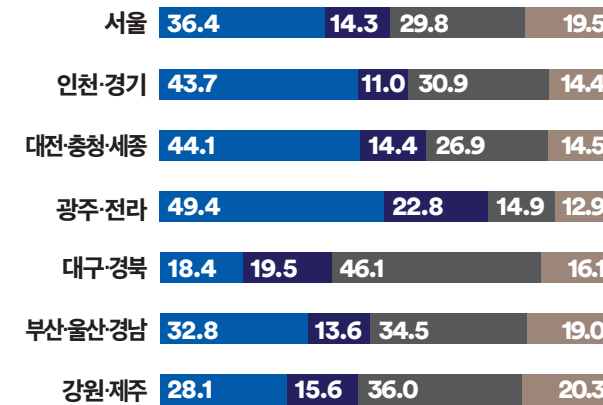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상은 단일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일화 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
두 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70세 이상 응답층(CATI TK지역 포함)에서는 '단일화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많음
두 조사의 국민의힘 지지층 중 '단일화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CATI 56.0%, ARS 56.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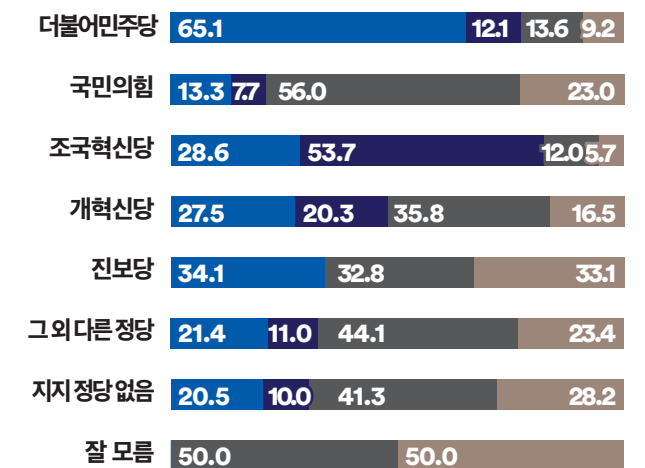
CATI조사의 무당층(n=151)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일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앞섬

PK지역의 경우 CATI조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32.8%)'와 '단일화 반대(34.5%)'의견이 박빙, ARS조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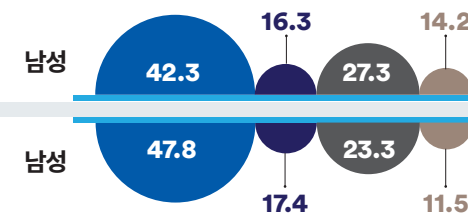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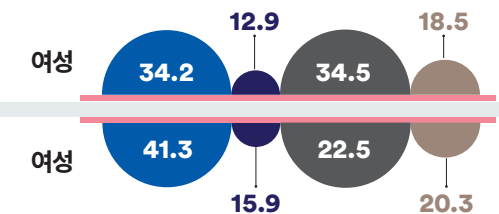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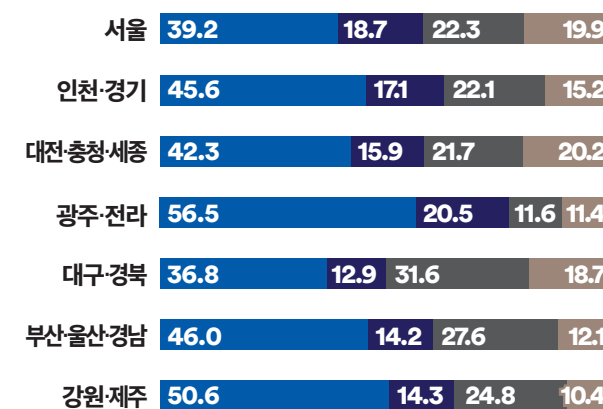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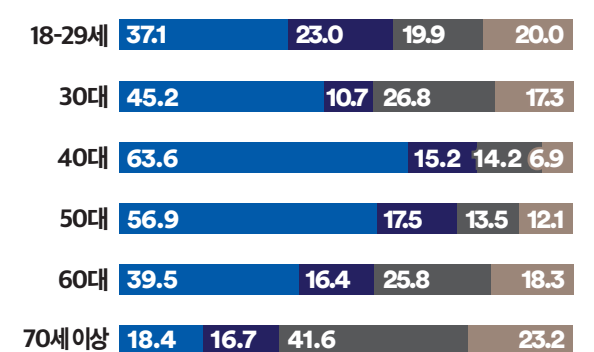
연령



권역



연령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국혁신당 후보 단일화에 반대한다 잘 모름



정치·사회 현안

금정구 단일화: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지지자 대상

Q. 16일 부산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어느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n=1,007

CATI

더불어민주당

41.9

조국혁신당

9.6

국민의힘

29.0

1.2

2.6

0.9

지지정당 없음

14.7

0.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그 외 다른 정당

지지정당 없음

잘 모름

전체 응답자 (n=1,007) 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자 대상 (n=518) 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CATI조사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자의 절반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응답

모든 지역과 연령대, 성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n=518

더불어민주당
후보

58.3

조국혁신당
후보

19.8

단일화에
반대한다

13.3

잘 모름

8.6

n=599

ARS

66.6

더불어민주당
후보

19.7

조국혁신당
후보

4.9

단일화에
반대한다

8.7

잘 모름

전체 응답자 (n=1,002) 중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자 대상 (n=599) 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ARS조사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응답

모든 지역과 연령대, 성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n=1,002

더불어민주당

49.5

조국혁신당

10.1

국민의힘

29.8

4.6

1.4

2.1

0.4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국혁신당 후보

단일화에 반대한다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10_03
